

테마칼럼

남도의 재발견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교육자치 근간 흔들지말라



김왕복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선생님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개혁이 성공하는 것이지, 선생님들의 자존심마저 깎고...

요즘 교육계 비리가 온 세상의 화두이다. 서울의 한 여장학사의 하이힐 구타 사건에서 비롯된 교육행정 비리는 교육감의 인사비리 연루설까지 연일 언론에 좋은 기사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교육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발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특성은 그 효과가 잘 보이지 않고 나타나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그래서 임기 내 성과를 지향하는 위정자들은 항상 교육에 대한 우선 투자를 꺼린다.

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 것은 기우일까? 투명성은 교육자치의 틀 속에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도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고...

시설

박광태 광주시장 불출마 뭘 의미하나

박광태 광주시장이 11일 6·2 지방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박 시장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은 그동안 3선 고지를 향해 꾸준히 준비해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의외의 일로...

원제가 박 시장의 말대로 지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면 정말 큰 문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 뿌리 뽑아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08년 한해에만 광주·전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4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대를 아예 잡을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 조치도 사라져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법선

법정스님이 가셨다. 스님은 불자에게는 출가자의 사표(師表)가 되었고, 세인들에게는 욕망의 무게를 들어주는 스승이었다.

갈등은 모두 분수를 넘어 많은 것, 큰 것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 스님은 우리도 잘 살아보라며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온 세상이 미친 듯이 내달릴 때 개발의 어려서움을 질타하시며 무소유의 자유를 말했다.

법정스님이 남긴 사리(舍利)

법정스님은 불교 조계종단의 고위 직책이나 그 흔한 주지 자리 하나 맡지 않았지만 불교계를 상징하는 큰 어른으로 통했다. 속세와 거리를 둔 삶을 살았지만 늘 사바세계의 대중과 함께 교감하며, 불가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다른 종교들과도 벽이 없이 소통했다.

망은 4대강 개발을 명분으로 전국의 산과 강을 파괴하기에 여념이 없다. 스님은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예로 드시며 '상찰을 잊은 개발에 의해 온 땅이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신 바 있다.

기고



범기철

참선이나 명상과 같은 오랜 정신수련을 한 사람은 실제로 뇌 활동이 바뀌어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수준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주장이 뇌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을 통해 좌뇌와 우뇌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새로운 연결고리들의 성장으로 효과적이고 복합적인 뇌의 힘을 증가시켜 전체가 되었다.

무예, 명상, 깨달음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은 "오랜 수행자들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수준의 뇌활동을 보여줬다"며 "정신 수련을 오래 하면 골프나 테니스 연습이 운동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뇌에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무적이다. 필자가 일본에서 태권도를 지도할 때 일본 무도대학의 무에세미나에 참석, 명상동작의 움직임을 통해 뇌파에 영향을 관찰한적이 있다.

백화점에 있어야 할 쇼핑카드 아파트에 있어서야

최근 퇴근길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1층 현관 쪽으로 들어가던 중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는 모 백화점 카드를 발견했다.

다. 가지고 나가서도 안되지만 불가피하게 끌고나갔다면 다시 갖다 두면 좋을 텐데 대부분 그냥 버려둔다. 어떤 집은 아예 손수레처럼 쓰거나 심지어 농촌에서 간단한 농기구를 담아 밭에 두고 쓰기도 한다.

無等鼓

"차가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데, 신종플루에 버금가는 감염률을 보이는 무서운 병이다. 심할 경우 인격장애, 더 나아가서는 자살까지 이를 수 있다"

중2병



전에는 이런 경우에 '오덕후' 라는 단어를 사용,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으나 이제는 개인 내면의 가장 아픈 부분을 파고들어 당하는 이들을 더욱 좌절케 하고 힘들게 한다.

세나,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자학에 빠진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변질돼버린 것이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